마틴 부써의 생애 (I)

종교회의들

마르틴 그레샤트(Martin Greschat. 1934~)

저자는 1965년에 뮌스터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부에서 〈루터 곁의 멜랑흐톤: 1528년에서 1537년 사이의 칭의론 형성에 대한 연구〉*(Melanchthon neben Luther. Studien zur Gestalt der Rechtfertigungslehre zwischen 1528 und 1537)*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9년까지 독일의 기쎈(Gissen)에 있는 유스투스 리비흐(Justus-Liebig) 대학교의 복음주의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레샤트가 저술한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urg)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써에 관한 전기는 가장 최근의 전기로서 〈마르틴 부써: 종교개혁가와 그의 시대〉*(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e Zeit)*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뮌헨(Müchen)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2002년에 파리에서 *Martin Bucer (1491 – 1551). Un Réformateur et son temps*라는 제목의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2004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Westminster John Knox) 출판사를 통해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라는 제목의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교회사에 관한 그레샤트의 소논문과 저술은 너무 많아 여기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의 저술목록(Schriftenverzeichnis Martin Greschat)은 인터넷 홈피 www.muenster.de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의 최근 저술로는 2002년에 출판된 〈복음적 기독교와 1945년 이후 독일 역사〉*(Die evangelische Christenheit und die deutsche Geschichte nach 1945)*와 2005년에 출판된 〈유럽의 개신교〉*(Protestantismus in Europa)* 등이 있다. 그는 1981-1986년 사이에 12권으로 편집 출판된 〈교회사의 인물들〉*(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의 편집인으로도 유명하다.

번역된 원고는 그레샤트의 책 〈부써: 종교개혁자와 그의 시대〉의 "6장. 제국의 종교개혁" 속의 내용 일부이다. 1장은 부써가 태어나 성장한 배경을, 2장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Erasmus)와 종교개혁가 루터(Luther)에게 부써가 받은 영향을, 3장은 스트라스부르 초기 시절을, 4장은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의 대변인이 된 부써의 도시개혁을, 5장은 개신교 연합운동의 선봉장이 된 부써의 활약상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6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의 연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직 개신교라는 교회가 로마교와 완전히 결별하기 이전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치히(Leipzig)

1538년 연말과 1539년 연초에 부써는 작센(Sachsen = Saxony) 공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협상에 참석했다. 후에 게오르크 비첼(Georg Witzel)은 이 스트라스부르 개혁가가 상인으로 변장하여 참석했다고 적었다. 부써는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압박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한동안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알베르트(Albert)의 작센 영지는 엄격한 가톨릭 게오르크 공작이 후계자 없이 사망한 후, 공국이 나아가야 할 종교적 길을 논의하고 있었다. 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은 필요하며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종교에 국한 되지 않았고 경제와 정치적 문제도 역시 논의의 대상이었다. 상인과 장인들이 공국을 버리고 자신들의 루터주의를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해 이웃한 에른스트(Ernst = Ernest)의 작센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베르트의 작센 권력층들은 공국의 독립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웃의 보다 강한 선제후 작센 공국의 모델을 따른 종교개혁의 모형을 반대했다.

그리하여 넘쳐나는 목적의식과 의욕이 칼로비츠(Carlowitz)의 작센 상서원장 게오르크로 하여금 에른스트의 작센과 헤세(Hesse)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비밀 회담을 열게 하였는데 공작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헤세의 영주 필립(Langrave Philip)은 칼로비츠의 이런 노력을 지지했다. 공국 안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은 헤세의 통치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필립은 자신의

상서원장 요하네스 파이거(Johannes Feige)를 라이프치히로 부써와 함께 보냈다. 작센의 선제후는 멜랑흐톤(Melanchthon)과 상서원장 그레고르 브뤽(Gregor Brück)을 보냈다. 작센 공국은 루터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게오르크 비첼을 비롯해 칼로비츠와 의원 루트비히 팍스(Ludwig Fachs)를 대표로 파견했다.

교회의 통일을 되살리는 일, 초대 교부들의 전례를 따름으로써 생겨난 과실을 없애는 일, 기독교적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 게오르크 비첼이 내건 강령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 모든 목표는 부써에게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 스트라스부르 개혁가에게 모든 종교개혁의 가치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신념이 중요했다. 이런 확고부동한 출발점에 서 있던 부써는 자신의 신학적 반대파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허용할 수 있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기만 하면 친히 승리의 길을 찾아내실 것이라고 부써는 확신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굳건히 서서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과의 협상에 참여하도록 재촉하는 프로테스탄트 동료들에게 부써가 내놓은 주장이었다. 즉 "시의회와 왕국, 그리고 초대 교회의 법령의 검으로" 기꺼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부써와 비첼 사이의 뜨거운 공방이 1539년 1월 2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졌다. 사적이면서도 공적이었던 이 논쟁은 소위 파울리눔(Paulinum)이라 불리는 곳에서(지금은 Universitätshochhaus, 즉 독일 민주공화국 시절에 세워진 고층 건물의 현대식 대학이 들어서 있는 곳) 시작되어 루트비히 팍스의 집에서 계속 되었다. 부써와 비첼이 논쟁적인 교리에 대한 논의를 후일로 연기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멜랑흐톤과 브뤽은 협상에서 물러섰다. 그들은 교리적 통일이 교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39년 동안 줄곧, 그리고 이후에도 부써는 라이프치히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제안한 논제를 상세하게 발전시켰다. 만일 신성로마제국

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다수의 제국 지역들을 초대교회의 정신에 기초한 광범위한 종교개혁에 찬성하도록 설득한다면 이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개혁가들도 나머지 제국과 독일 전역에 걸친 합법적인 교회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노력은 이후 부써의 목표가 되었다. 이 목표는 대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써가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이프치히 회의가 끝나 갈 무렵, 양 진영은 부써가 작성한 것으로 짐작 되는 15개 항에 합의했다. 이것은 칭의, 참회고백, 세례, 미사, 견진, 교황권, 여러 의식들, 그리고 성인에게 기도하기,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의 정부의 역할 등 실생활과 관련 된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교리에서의 이견은 대부분 무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전문을 교회법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은 작센 공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다. 가톨릭에게 어떤 종교적 양보도 허용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부써였다. 세례, 견진, 특히 미사와 교황권과 같은 결정적인 종교 논쟁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인정했다. 그 당시 부써의 이런 태도는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현재에도 그런 비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일반적인 교회의 관습과 초대교회 예배 관행과 의식,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 쇄신, 개인적인 신심을 갈망하는 열망들이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지속된 실용적인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 부써의 통찰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단계에서– 20세기와 21세기 교회연합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취하기위해 전심을 다했던 일이었다. 부써의 생각은 이러했다. 즉 순수한 교리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논하지 말고 오히려 윤리적 맥락에서 그것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자. 그런 후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이야기 하자. 즉 교회의 하루하루 일상의 맥락에서 논하자.

부써와 비첼이 작성한 라이프치히 원문은 이후에 제국은 물론 로마에 이르기까지 널리 회자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광범위한 제국의 교회 개혁을 이끌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정전협정을 부써가 철저히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게나우(Hagenau)까지

프랑크푸르트 정전협정은 부써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를 포함한 많은 종교개혁 지지자들은 제국의 법에 따라 슈말칼트(Schmalkald) 동맹에 가입한 현재의 회원들만이 평화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부써는 동맹 회원들의 근시안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분명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얻어낸 결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부써는 프랑크푸르트 정전협정 중에서 한 가지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지했는데, 그것은 신앙고백 당사자들이 모여 자유로운 종교회담을 열게 하겠다는 황제의 맹세였다. 부써는 이 의회가 교황이나 다른 상부 권력의 방해 없이 제국의 독일 전체 대표들이 모이는 국가적 교회 회의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로마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교회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기독교 믿음의 진정한 근본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그 외의 해결 되지 않은 문제들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맡겨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목적이자 출발점이기도 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오로지 도움과 구원을 하나님께만 구한다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써 주장의 기초였다. 만일 가톨릭 측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기만 한다면–정확하게 설명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부써는 확신하였다– 다른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와 관련 된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진정한 토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써는 다시 한 번 신앙에 관한 중심 조항과 부차적인 조항의 구분을 감행했다. 부써같이 마음이 관대한 사람도 교황권이나 교황청에 관한 문제에 이르러서는 비타협적이었다.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 하려면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이 배제 되어야 했다. 로마는 교회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슬픈 사태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를 억압 하려 한다고 부써는 확신했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16세기에 접어들어 단체로서의 (즉 모든 일상생활에 관련 된 조직으로써) 교회가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그 자산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전체 성직록의 체계와 관련 된 문제, 장기 공석인 교구 목사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 출자되어 사회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광대한 수도원과 부속 교회의 자산, 그리고 고위층과 특히 귀족들의 자녀를 위해 이 자산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16세기 초에 부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이런 현실을 경험했다. 부써의 고향인 셀러스타(Sélestat=슐레트슈타트. Schlettstadt)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의 자산은 순전히 학문적인 문제였다. 부써가 근본적인 신학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실용적인 문제에도 동일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그가 접근한 종교개혁의 특징이었다. 그의 사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신성한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언급 할 때면 항상 하나님의 모습과 기준, 그리고 법을 동시에 언급했다.

위에 프로그램을 부써는 대화 형식을 이용하여 『누렘베르크 협정에 관하여』 *(Vom Nürnbergischen fridestand)*라는 책으로 1539년 "콜라트 트로이에 폰 프리데스레벤" *(Konrad Treue von Friedesleben)*이라는 가명을 써서 출판했다. 이 책은 쾰른(Köln)의 대주교 헤르만 폰 비트(Hermann von Wied)의 조카이자

정치와 교회에 얽힌 문제를 위한 조언자였던 만더샤이트-블랑켄하임(Manderscheid-Blankenheim)의 반트 루프레흐트(Band Ruprecht)에게 헌정 되었다. 이 책은 부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열정적으로 펼쳤던 독일 국가교회 평의회(council)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의 일부분만을 보여준다. 독일의 개혁가 중 어느 누구도 마르틴 부써처럼 이와 같이 다양성과, 때로는 상충되는 입장의 모순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뛰어난 웅변술과 저술 능력, 그리고 신학적 융통성으로 그와 같은 다양성과 모순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없다. 이런 지적이고 뚜렷한 업적으로 대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가는 이제 더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가명으로 출판된 책 『누렘베르크 협정에 관하여』에서 부써는 제국 도시 슈파이어(Speyer)에서 벌어진 세 남자의 가상 대화를 선보였다. 그 세 남자는 귀족과 수도원장과 제후의 서기관이다. 종교개혁의 강력한 지지자인 귀족은 의지가 굳은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수도원장은 개혁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려깊은 가톨릭의 모습이었다. 제후의 서기관은 부써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며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귀족과 수도원장을 설득하여 국가적인 교회회의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1540년 부써는 다시 한 번 동일한 가명을 사용하여 동일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교회의 자산에 관한 상세한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대화 형식의 책을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에서 출판했다. 이 책은 1540년 2월 4일 집필이 완성 된 직후 사망한 프리시아(Frisia)의 군주 타우센베르크(Tautenberg)의 게오르크 쉥크(Georg Schenk)에게 헌정되었다.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부써는 범독일적 교회회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부써는 이 대화 형식의 책이 '무엇이 막대한 교회의 재산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하도록 기여하기를 원했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분명 교회회의와 같은 것이었다. 가톨릭이 자신들을 위해 전통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프로테스탄트들은 전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부써는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이 전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되어진 교회법, 즉 성경에 의해 정화되고 순화된 교회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가상의 귀족도 이런 견해를 다음과 같이 잘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말하기를 프로테스탄트들은 너무 자주 "마치 기독교회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무덤에 있다가 그들이 일으켜서야 비로소 돌아왔다는 듯이" 말한다는 것이다.

성경과 교회 전통은 교회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수단과 재원들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 한다고 부써는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전통은 이런 수단과 재원들이 교회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교회에 부여되었음을 증거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써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을 모독하는 강도들이라는 가톨릭 측의 비난을 전통적의 교회 지지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교회법과 성당 참사회, 신부와 수녀, 주교, 추기경 등 모두는 이런 재산들을 자신들의 것인 양 쓰고 살면서도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목회적인 보살핌 등 회중에 대한 섬김은 무시하지 않았던가! 부써가 개혁을 위해 제안한 것은 각 회중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의 재산을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당국자들은 이 과정을 감독하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몫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에 제공하는 필요한 봉사는 다른 유용한 봉사의 일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원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외국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등 스스로의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교회에 속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마련한 광활한 토지와 주교들의 영토가 포함 된 수도원의 재산은 세상에 귀속시켜야만 한다. 부써는 교회의 직책을 맞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거나 혹은 귀족이나 시의 귀족들로부터 이런 재화의 사용권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했다. 이런 관점

에서 본다면 새로운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될 것이다.

부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하게나우(Hagenau)에서-또 다른 후보 도시 슈파이어(Speyer)는 역병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됨- 1540년 5월 종교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되자 부써는 다시 한 번 대화의 형식을 빌었다. 여기서 그는 한 이성적인 성당 참사회원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황을 지지하는 다소 이성이 떨어지는 동료 참사회원에게 국가적 회의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기비판적인 참사회원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매일 강성해지는지 반면, 가톨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피폐해진다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학식 있는 사람도 없고 존경이나 미덕은 우리 중에 찾아 볼 수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계승자들로부터만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만이 교황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사려 깊은 고위 성직자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전쟁이나 혹은 파멸로 떨어지는 대신에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적 차원의 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교회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게나우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부써는 다시 한 번 "바르문트 로이트홀트"(Wahrmund Leuthold)라는 가명으로 1540년 소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서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과 공의회에서 얻어 내지 못한 목표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여기서 부써는 직설적으로 프로테스탄트는 평화를 사랑하며 교회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로 그리면서 반면 가톨릭은 전쟁을 일으키는 선동가이며 순전히 교황의 의사에 따라 현재의 과오들을 방어하려 하는 사람들로 묘사하며 비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진영들과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교회의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자신들을 뒷받침해 줄 주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써는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성경, 교부들, 그리고 심지어 초대 교회 공회의 강령조차도 프로테스탄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황을 따르는 무리들은 프로테스

탄트들과 논쟁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적들을 재판관들로, 즉 보호자들과 후원자들로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 되겠는가?

동시에 부써는 더 많은 대중을 염두에 두고 가명으로 책을 발간하여 국가적 회의를 찬성하는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였고 지역 제후들에게 개인적이 편지를 보내 동일한 목적을 얻고자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신학적으로나 교회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영향을 끼친 군주는 헷세(Hesse)의 필립(Philip)이었다. 이 영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써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 가운데 하나로 부써는 신성로마제국의 상황이 교황의 영향을 배제한 채 국가적 회의를 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많은 제국의 도시와 제후들은 슈말칼덴 조약(Schmalkaldic League)에 의지하고 있고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신학적, 역사적 주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넘어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교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의 권능으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결과들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써는 단언하기를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고 전쟁의 개입 없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마다 하나씩 말끔하게 몰아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써가 결코 신학적인 차이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부써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신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부써와 이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주권이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에 동의하는 첫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점차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신학적 통찰력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함께 지녔다.

부써가 영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두 번째 사항은 지역 군주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과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었다. 부써가 자신의 출판을 통해 추구했던 것처럼 필립 역시 제국회의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황제 칼(Karl=Charles. 찰스) 5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써는 이 종교회의를 통해 "진정한 교회 개혁의 영광스러운 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야심 찬 개획을 황제가 후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반대와 저항을 받으리라 예상했다. 칼 5세가 부써의 계획대로 되도록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페르디난트(Ferdinand) 왕은 1540년 6월 12일 하게나우에서 엄숙하게 회의를 개회했다. 부써는 6월 22일 도착했다. 분위기는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양 진영은 절차에 대해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가톨릭 측은 1530년 아욱스부르크 국회(diet of Augsburg)에서 멜랑흐톤(Melanchthon)과 에크(Eck)가 중단한 협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측은 상대 진영에 우선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이 교리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페르디난트는 7월 28일까지 회의를 휴회하고 하게나우 북쪽으로 70마일 쯤 떨어진 보름스(Worms)에서 다시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양측의 학자들에게 황제가 보는 앞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자유로운 신앙고백의 협상을 약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비텐베르크와 로마의 강력한 압력 집단들에게는 하게나우 회의의 실패가 마냥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 진영은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써는 가톨릭 대표들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양측을 이어줄 다리를 놓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하게나우에서 부써와 더 가깝게 된 사람들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쾰른의 대주교 헤르만 폰 비트와 특히 그의 조력자 요하네스 그롭퍼(Johannes Gropper) 등을 들 수 있다.